

##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불안의 매개효과와 독립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하 정 희<sup>†</sup> 허 보 연 강 연 우 송 언 희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상담센터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와 독립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대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하여 내현적 자기애 검사, 직업결정 검사, 불안 검사, 진로태도 성숙도의 독립성 검사로 구성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인 '우유부단' 간의 관계에서 불안이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독립성 수준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인 '필요성 인식 부족'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독립성 수준이 낮을 때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클수록 진로에 대해 필요성을 덜 인식하지만, 독립성 수준이 높을 때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더라도 진로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큰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진로 상담에 갖는 의의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애, 진로미결정, 불안, 독립성

\*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 교신저자 : 하정희,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상담센터, (426-79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Tel : 011-366-6777, E-mail : hajung366@hanmail.net

진로를 개척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의 종류, 주로 관계해야 할 사람, 자신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삶의 방향과 길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Tolbert, 1980).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는 일은 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실제로 대학 상담 장면에서 진로문제는 내담자의 주요 호소문제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어 진로에 대한 연구와 이해 및 적절한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오충광, 2008).

진로와 관련된 주된 연구주제 중의 하나가 진로미결정이다. 진로미결정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지금까지 자아정체감,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불안 등의 심리적 변인들이 진로미결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왔다(이혜성, 홍혜경, 1998; 정채기, 1991; Fuqua, Newman, Seaworth, 1988; Lucas, 1997; Taylor & Betz, 1983; Hackett & Betz, 1981). 이러한 진로미결정에 대한 관심은 성격과의 연관성으로 이어져서 이지영(2004)은 진로미결정과 성격 5요인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또한 김은석(2006)은 이러한 일반적인 성격특성들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특정성격군인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자기애적 성격특성은 현대사회의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큰 사람들은 우울하고 불안하며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민감하고 쉽게 상처받는 등의 부적응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심리적 불편감이 더 클 것이고, 이에 따라 상담이나 치료 장면에서 이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들은 목표가 불안정하고,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민감하며,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로미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면에서 이들이 진로미결정에 이르게 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이들을 이해하고 상담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진로미결정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애(Narcissism)는 Freud에 의해 인간의 심리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Freud(1953)는 자기 사랑과 자기 과대화와 같은 태도, 자존감이 손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과대 망상이나 이상화와 같은 방어성, 자기충분성과 완벽함에 대한 추구, 특권의식, 타인을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경향 등을 일컬어 자기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기애는 Freud 이후로 정신분석 이론과 임상 실제에서 계속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현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구성 개념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자기애적 성격은 자기 과대화나 웅대함과 같은 외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두려움과 취약성, 우울이나 열등감 같은 특성을 감추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자기애의 이중성에 따라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나누어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다(Akhtar & Thomson, 1982; Kernberg, 1975; Kohut, 1977; Wink, 1995). 이러한 견해는 기존의 자기애 척도들을 요인분석 하였을 때 특성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직교 요인으로 나뉜다는 Wink(1991)의 연구를 비롯해 다양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어 왔다. 이렇듯 자기애는 발현양상만 다를 뿐 기저의 핵심특

성을 공유하는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두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기애의 핵심특성인 거대자기와 특권의식을 속으로 감춘채 겸손을 가장하며 평가에 예민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경우,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국내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고,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으며(정남운, 2001), 자기 효능감이 낮고(이원희, 2001), 부적응적인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연우, 2004).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며 실제 자기-이상적 자기 간에 괴리가 크고, 우울하며,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세란, 2004). 이준득(2005)과 백승혜(2005)의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더 우울하고, 더 적대적이며, 타인 비하의 적대적 사고를 더 많이 보이고, 일상적으로 더 많이 분노하지만 그 분노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의 다양한 부적응적 특성과 관련지어서,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김은석(2006)은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진로를 미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으며 특히 내현적 자기애의 목표불안정 요인이 진로미결정의 모든 하위변인들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렇게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목표불안정 요인이 진로미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이춘희(2007), 송언희, 강연우, 허보연, 하정희(2008)의 연구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 되

었다. 이들 연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부적응적 특성의 하나로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특성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 이들이 이렇듯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 또한 이들을 위한 진로지도 현장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Kohut(1971, 1977)은 자기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만성적으로 막연한 자기 파편화의 불안에 시달리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보았다. 내현적 자기애의 핵심 특징인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우습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며(Marks & Gelder, 1966),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고 싶으나 그러한 인상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의심스럽거나, 자신의 능력에 불안을 느낄 때 경험하는 불안이다(Schenker & Leary, 1982, 박동숙, 2004,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인불안을 많이 느끼고(이인숙, 2002), 불안 수준이 높으며,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강박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박동숙, 2004). 이와 같은 자기애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가 불안과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안은 또한 진로미결정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Gorden(1981)은 미결정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발달적으로 고찰한 결과, 불안이 만성적인 미결정자들을 확인해 내는 일차적인 선별자임을 확인하였다. Fuqua와 Hartman(1983) 역시 불안이 만성적인 미결정자를 확인

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Kimes와 Troth(1974)은 진로를 결정한 사람들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간의 불안 경향성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고 진로결정에 대한 만족도도 낮다고 하였다. 또한 불안이 작업 수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진로탐색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안을 낮추는 것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Fuqua, Newman 및 Seaworth(1988)에 따르면 특성불안과 상태불안 중에서 특히 특성불안이 상태불안보다 진로미결정을 더 설명해 주며, Lopez(1989)는 특성불안이 대학생활 적응, 가족역동과 함께 남녀 대학생의 진로 정체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Greenhaus와 Sklarew(1981)는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보를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들은 직업 탐색이 유용하지 않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가적인 탐색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현정(1995)은 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기 비난적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족을 보이며,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검사 상황, 실패가 예측되는 상황, 자신의 능력과 관계된 상황일 때 불안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더 큰 위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진로결정에 대한 회피 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봉환과 김계현(1997)은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 수준을 나타내 주는 선별자로서 특성불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해성과 홍혜경(1998)은 군집분석을 통해 여러 진로결정상태 군집 중에서 진로결정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혼돈미결정형과 불안결정형에서 특성불안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는 것을 알아냈다. 이영선, 김정희, 이영순(1999)도 부모와의 애착이 특성불안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특성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렇듯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현적 자기애, 불안, 진로미결정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통하여 내현적 자기애가 불안을 매개로 하여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최근 특히 진로지도 및 상담에서 진로발달 혹은 진로성숙이란 개념이 매우 핵심적인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진로성숙을 최초로 개념화한 Super는 진로성숙이란 '탐색기에서 쇠퇴기에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Super, 1955)라고 정의하였으며 진로성숙이 일어나는 5가지 차원, 즉, '진로계획', '직업탐색', '의사결정',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로 개인의 진로성숙 정도를 나타내었다. Crites(1978)는 이를 비판하고, 진로발달을 정도와 비율이라는 두 가지 독립적인 구성개념을 사용하여, 진로성숙을 진로선택의 과정에 나타나는 인지적·정의적 특성의 동일 연령층에서의 상대적 위치로서, 보다 일관되고 확실하며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Crites, 1978). Crites(1978)는 진로성숙의 구인을 직업으로 선택할 때 능력요인과 태도요인으로 제시하고, 태도 요인의 하위요인으로는 개입성, 방향성, 독립성, 선호성, 선택과정의 5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이기학(1997)은 한국 학생들의 진로태도와 관련된 차원은 이와 차이가 있다고 보고 결정성, 확신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을 진로태도성숙의 5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 차원과의 관련성은 물론, 진로태도 성숙 자체와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의 다양한 특성을 살펴볼 때 이들은 낮은 자존감과 신경증적 경향성(정남운, 2001a), 높은 대인불안(이인숙, 2002), 높은 불안 수준과 강박 증상(박동숙, 2004), 부적응적인 방어유형 사용(강연우, 2004) 등의 부적응적 모습과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은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주된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큰 사람들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여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로선택에서의 어려움은 진로태도 성숙과 부적응적으로 관련된다고 예측할 수 있으며, 진로태도 성숙 가운데에서도 의존 대 주체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독립성 차원이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으로 인한 진로미결정 문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Kohut(1971, 1977)은 거대자기와 이상화의 두 축을 따라 자기애가 발달하는데, 이때 자기대상(selfobject)의 공감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며 이 자기대상의 공감의 실패가 자기애적 장애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자기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치감 조절의 기능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자기대상에 과도하게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자기대상의 긍정적 평가와 인정을 늘 갈망하는 욕구를 자기대상욕구라고 하는데 김미자(2008)의 연구를 보면 이러한 자기대상욕구가 진로미결정과 상당히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갈망을 충족하려 하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타인의 인정과 반응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진로미결정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이러한 태도는 이기학(1997)이 정의한 진로태도 성숙의 하위 요인인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 중에서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독립성과 관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대상욕구는 진로에 대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진로결정에 있어서 만성적인 이상화와 완벽성, 열등감으로 인해 스스로 결정하는데 자신 없어하고 의사결정을 남에게 맡기는 등 타인에게 의존하는 식의 의사결정에 익숙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듯 이들은 내적으로 열등감과 무가치감을 주로 느끼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힘과 명예 또한 추구하고자 한다. 김은석(2006)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변인인 ‘목표불안정’, ‘착취/자기중심성’이 커질수록 진로미결정 정도가 커지는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의 ‘인정욕구/거대자기’가 클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한다는 결과를 발견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큰 사람들이 뚜렷한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서 진로를 결정하기 보다는 직업을 통해 이상화된 자신의 가치를 잠정적으로나마 확인하려 한다거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하는 동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한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이들은 내적으로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 하면서 동시에 거대한 자기를 이상화하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주체적이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시선을 의식하는 탓에 의사결정 또한 남에게 맡길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상화하는 모습처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서 자신감 있게 의사결정하려는 마음 또한 공존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도 자기대상육구에서 좀 더 자유로와져서 진로에 대한 의사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진로결정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발달 이론에서는 진로 및 직업선택이 생의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의사결정이기 보다는 진로선택 및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Phillips & PaziENZA, 1988). 개인의 성격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내현적 자기에와 진로결정과 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큰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심리적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이 진로를 보다 잘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진로와 관련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를 위한 개입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점들을 시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독립성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내현적 자기에와 진로미결정과 의 관계에서 불안이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연구문제 2.** 진로태도 성숙의 독립성 수준에 따라 내현적 자기에와 진로미결정과 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조사의 대상은 서울지역의 A대학 남녀 대학생 3, 4학년 총 251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된 17명을 제외하고 총 23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은 단과대 별로 무선적으로 수업을 선별하여 그 수업을 듣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집단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234명으로 성별로는 남학생 151명(64.5%), 여학생 81명(34.6%), 무응답 2명(0.9%), 학년별로는 3학년 96명(41.0%), 4학년 138명(59.0%)이었다.

### 측정도구

#### 내현적 자기에(Covert Narcissism Scale; CNS)

본 척도는 강선희, 정남운(2002)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목표설정의 어려움과 불확실성,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 및 불만족을 나타내는 ‘목표불안정’,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으며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매사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적인 대인관계와 특권 의식, 자기중심성을 반영하는 ‘착취/자기중심성’, 자신을 불행하고 무가치하게 느끼고 평가에 예민한 ‘과민/취약성’, 마지막으로 소심하고 내향적이며 자신감이 부족한 ‘소심/자신감 부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총 4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선희,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0으로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는 순서대로 .89, .81, .74, .80, .77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3으로 각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는 순서대로 .91, .76, .78, .84, .81로 나타났다.

#### **직업결정척도(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

본 척도는 탁진국과 이기학(2001)이 국내 대학생 표집을 이용해 국내 문화에 적합하게 개발하였다. 하위척도는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 필요성 인식부족, 외적장애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문항으로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탁진국, 이기학(2001)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7이며,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순서대로 .83, .88, .72, .62, .6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9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는(Cronbach  $\alpha$ )는 순서대로 .84, .89, .81, .84, .75로 나타났다.

#### **진로태도성숙도**

본 척도는 이기학(1997)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진로 결정에 대한 성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본 척도는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5개의 하위 차원을 가진 총 4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독립성 9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기학(1997)의 연구에서 독립성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7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78로 나타났다.

#### **불안(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본 척도는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이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척도(STAI)를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한국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시킨 것이며,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이 2개의 하위요인 중 특성불안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 불안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특성불안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2였다.

#### **분석방법**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세 단계의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진로태도성숙도의 조절변인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조절변인 분석에서는 회귀분석을 적용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홍세희, 2007).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태도성숙도의 독립성 차원을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이 변인들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주효과(내현적 자기애와 독립성)를 통제 한 후에도 종속변인(진로미결정)에 대한 상호작용 변수(내현적 자기애  $\times$  독립성)의 효과가 유의할 때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결 과**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내현적 자기애, 불안, 독립성(진로성숙태도의 하위요인), 진로미결정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계수를 구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 대부분이 불안과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독립성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단 내현적 자기애의 인정욕

구/거대자기 환상과 진로미결정의 필요성인식부족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내현적 자기애와 불안과의 관계

앞서 표 1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와 불안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불안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enter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1. 내현적 자기애, 불안, 독립성, 진로 미결정과의 상관계수(r) (N=234)

		독립성		진로미결정					
		불안	(진로성숙태도)	진로미결정	직업정보	자기명확성	우유부단	필요성인식	외적장애
내 현 적 자 기 애	목표불안정	.62***	-.45***	.73***	.51***	.68***	.62***	.32***	.33***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23**	-.34***	.24***	.21**	.21**	.21**	-.00	.16*
	착취/자기중심성	.25**	-.45***	.36***	.23**	.30***	.29***	.21**	.21**
	과민/취약성	.74***	-.37***	.53***	.27***	.38***	.61***	.23**	.39***
	소심/자신감 부족	.65***	-.30***	-.30***	.26***	.37***	.72***	.26***	.27***

\* $p < .05$ , \*\* $p < .01$ , \*\*\* $p < .001$

표 2. 불안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Beta	t	R <sup>2</sup>	F(5, 228)
내 현 적 자 기 애	목표불안정	.34	6.96*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02	-.43		
	착취/자기중심성	-.23	-5.04*	.72*	84.29*
	과민/취약성	.69	10.34*		
	소심/자신감 부족	.04	.70		

\* $p < .001$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의 결과를 통해 불안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 중에서 목표불안정( $t=6.96, p<.001$ ), 착취/자기중심성( $t=-5.04, p<.001$ ), 과민/취약성( $t=10.34, p<.001$ )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의 목표불안정과 과민/취약성이 높을수록 불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착취/자기중심성이 높아질수록 불안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 내현적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

앞서 표 1, 2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와 불안, 진로미결정 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살펴 보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증명하기 위해 세 번의 회귀분석을 해야 한다. 먼저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하고,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 그리고 (3)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도록 하는 회귀분석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1)의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줄어들어야 한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

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는 큰 것이며 0이 되면 완전한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Kenny, 2001). 이에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불안이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 사이를 매개하는지를 진로미결정 하위변인인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 ‘필요성 인식부족’, ‘외적 장애’ 별로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로미결정 하위변인 가운데 ‘우유부단’만이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나타내어 이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나머지 진로미결정 하위변인들에 대해서는 내현적 자기애의 직접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났고 이들과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에서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는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불안을 유의하게 예언하였으며( $\beta=.70, p<.001$ (절차 1), 종속변인인 진로미결정 하위변인인 ‘우유부단’도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beta=.65, p<.001$ (절차 2).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도록 하는 회귀분석에서(절차 3), 매개변인인 불안이 종속변인인 ‘우유부단’을 유의하게 예언하였고( $\beta=.32, p<.001$ ), 불안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우유부단’을 유의하게 예언하였으나( $\beta=.42, p<.001$ ) 그 수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Sobel(1982)이 제안한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내현적 자기애와 ‘우유부단’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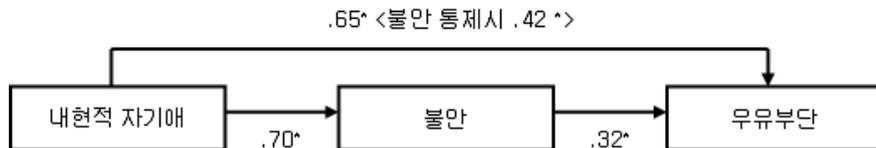


그림 1. 내현적 자기애와 우유부단과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 $p^* < .001$ )

에서 불안의 매개효과가  $b=.18$ 로 직접효과  $b=.10$ 보다 크고 매개변인의 설명력은 64.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Z=3.92, p<.001$ ).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는 진로미결정 하위변인인 ‘우유부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안을 매개로 하여 ‘우유부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성숙태도의 독립성 수준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가 진로성숙태도의 독립성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현적 자기애와 독립성을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서 이 변인들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주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를 진로미결정 하위변인인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 ‘필요성 인식부족’, ‘외적 장애’ 별로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진로미결정에 대한 내현적 자기

애와 독립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 가운데 ‘필요성 인식 부족’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 중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필요성 인식 부족’의 결과만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살펴보면, 진로미결정의 ‘필요성 인식 부족’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와 독립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주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beta=-.47, p<.01$ ), 진로성숙태도의 독립성 수준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필요성 인식 부족’과의 관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필요성인식부족’과의 관계에 있어 진로성숙태도의 독립성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그림 2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성이 높은 경우( $b=-2.275, t(234)=-2.423, p<.05$ )에 내현적 자기애와 필요성인식부족 간에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고, 독립성이 중간인 경우와( $b=.442, t(234)=2.21, p<.05$ )와 낮은 경우( $b=3.159, t(234)=3.20, p<.01$ )에 내현적 자기애와 필요성인식부족간의 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독립성이 중간

표 3. 진로미결정의 필요성인식부족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 진로성숙태도의 독립성, 내현적 자기애× 독립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1단계( $\beta$ )	2단계( $\beta$ )
	내현적 자기애	.37	.44*
	독립성	-.86***	-.85***
필요성 인식 부족	내현적 자기애 × 독립성		-.47**
	$\Delta R^2$		.030
	$R^2$	.147	.177
	F	19.97***	8.31**

\* $p<.05$ , \*\* $p<.01$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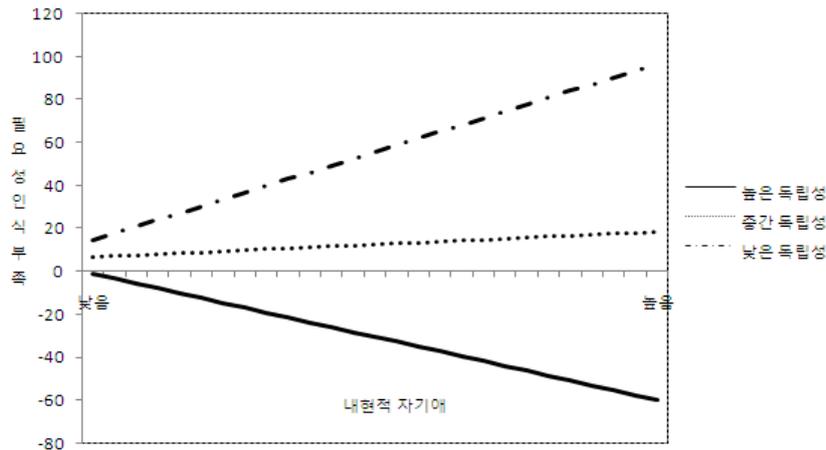


그림 2.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필요성 인식부족'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의 조절효과

인 경우와 낮은 경우에 내현적 자기애가 큰 대학생들은 진로결정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는 반면에, 독립성이 큰 경우에는 내현적 자기애가 큰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진로결정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이들 간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와 진로성숙태도 가운데 독립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는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 하위요인인 '우유부단'과의 관계에서 나타났다. '우유부단'을 제외한 진로미결정 하위요인인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

족', '필요성 인식부족', '외적 장애'는 내현적 자기애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더 크게 나타났고 불안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현적 자기애가 불안과 높은 관련성을 보임은 선행연구에서도 여러 번 밝혀진 바 있다(강은영, 2002; 박동숙, 2004; Rhodewalt & Morf, 1998; Schurman, 2000).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에서만 과시적이고 웅대한 환상이 나타날 뿐,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쉽게 상처받는 특성을 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주된 모습은 우울과 불안 또는 과민한 모습들이다. 이들은 특히 일을 함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쉽게 소진감을 느끼기 때문에 성취와 관련된 불안을 크게 느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불안하고 우유부단하여 좀처럼 쉽게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하여 이혜성, 홍혜경(1998)은 불안은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결단성 부족'과 가장 깊

은 관련성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단성 부족은 진로미결정 하위변인인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요인’, ‘필요성 인식부족’, ‘외적 장애’ 가운데 우유부단한 성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 관계에서 불안보다는 내현적 자기애 그 자체의 특성이 진로미결정에 더 밀접하게 관련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직업적, 사회적 정체성의 불확실성, 지나친 민감성과 열등감, 취약한 자기개념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개인의 자아정체감과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열등감이나 취약한 자기개념, 타인에 대한 시기와 이상화와 같은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은 자기 자신의 적절한 능력 판단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부정적 자아정체감이나 낮은 자존감, 낮은 자기효능감 등의 특성으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모호하고 자신감이 없으며 자신이 결정한 직업을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낮을 것이기에 진로결정 그 자체가 더욱 더 어려울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는 진로미결정과 대체로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나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변인 가운데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은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 가운데 ‘필요성인식 부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내현적 자기애의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으며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매사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낸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

적 자기애가 공유하는 특성으로서,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 결과,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은 적대감이나 신경증적 경향성, 우울감과 관련되지만 다른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들과는 달리 정신병적 경향성과 부적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자존감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의 특성 아래에는 특권의식, 자만심, 인정욕구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숨겨져 있어서 친밀한 관계에서만 과시적이고 웅대한 환상이 드러난다. 이러한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이 진로미결정의 ‘필요성인식 부족’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이들이 가진 자만심과 특권의식으로 인해 직업선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지어서, 김은석(2006)의 연구에서는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이 ‘필요성인식 부족’과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나타낸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이들이 진로결정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뚜렷한 목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보다는 직업을 통해 이상화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성숙도 하위변인인 ‘독립성’ 수준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인 ‘필요성인식 부족’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이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내현적 자기애가 큰 사람들 대부분은 진로결정을 어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큰 경우라도 그들이 자신의 진로문제를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들이 진로결정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여 진로를 보다 잘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독립성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큰 사람들에게서만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진로성숙태도에서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성 또한 진로미결정의 발생과 유지에 체계적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김순정, 2000; 김진희, 1999; 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Kinder, Brigman, & Noble, 1990).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성숙태도에서의 독립성은 분명 다른 차원이지만, 두 차원 모두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율성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 활동을 할 때 자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진로미결정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한주옥, 2003; Guay, Senecal, Gauthier & Fernet, 2003).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 몇몇 시사점을 제공한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힘과 명예를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그와 동시에 열등감을 크게 느끼고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끼기 쉽다. 자기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여 도달할 수 없는 목표치를 추구하면 할수록 의사결정이 미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며, 진로와 관련지어 볼 때도 그 진로를 결정할 필요성조차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과정을 통하여 이들의 취약한 자기개념 및 다양한 부적응적 대인관계나 사회적 특성을 내담자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의 진로

결정의 특성 역시 이러한 부적응적 패턴을 재현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즉, 내현적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만성적인 이상화와 완벽성,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불안으로 인해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주위의 시선과 평가에만 의존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의존성을 줄여나가고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스스로의 의견과 결정을 따르는 비율을 높여나가면서 서서히 자신감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이러한 주체적인 태도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직업선택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상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이 연구를 통해 자기애와 관련지어 우울, 불안, 대인관계 등의 특성과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진로, 특히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진로와 관련된 자기애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진로미결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담자 각각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상담전략을 선택하여 앞으로 경험하게 될 어려움을 미리 예측해 보아야 한다(Vondracek, Hostetler, Schulenberg, & Shimizu, 1990). 따라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특성인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에서 더 나아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큰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 또한 살펴보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큰 사람들이 민감성, 열등감, 취약함 등의 여러 가지 부적응적 특성과 진로결정과의 관련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송언희 외, 2008)를

통해 내현적 자기에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내현적 자기에의 '목표불안정' 요인이 진로미결정 하위변인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큰 사람들은 내재화된 목표 부재와 직업적·사회적 정체성 불만족, 불확실성 등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감에 기반을 둔 뚜렷한 목표를 확립하기 어려워하며,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의 필요성조차 못 느끼며 계속적으로 우유부단한 채 진로결정을 미루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에의 부적응적 특성 그 자체가 진로미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요인 가운데 '우유부단'과 관련지어 볼 때 불안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내현적 자기에의 핵심 특징인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한 민감성 및 취약성은 승인에 대한 요구, 과잉불안 염려, 개인적 완벽성 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된다(Glass & Furlong, 1990).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큰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완벽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위협을 미리 예상하고 그것을 반추한다. 따라서 이러한 그들의 특성으로 인해 그들은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보다 완벽한 결정, 타인에 의해 인정받는 결정을 하려고 함으로서 우유부단한 채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이에 상담과정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큰 사람들의 진로미결정 과정을 점검해보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의 기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들이 겪고 있는 정서를 다루어준은 물론 이들의 신념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내현적 자기에와 진로미결정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내현적 자기에가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로태도성숙도 즉, 진로 선택에 있어서 의존적이지 않고 보다 독립적으로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하려는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들은 직업선택에 대한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진로결정에 이를 수 있을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도 진로결정과 관련지어서 다양한 내담자들의 진로 준비행동이나 진로결정 내지 미결정 그 자체를 먼저 검토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는 각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진로미결정은 개인마다 서로 다른 표현양상과 원인들을 지닌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이기에 이 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큰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진로태도에 있어서의 성숙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이들이 진로선택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의 특성을 확인해보고 이를 다루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진로선택능력에 자신감이 부족하여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에만 의존한다면 그러한 사고와 행동을 유발하는 그 개인의 불안이나 완벽주의적 성향, 타인에 대한 예민함 등의 부적응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주어야 할 것이다. 상담 장면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큰 사람들이 자신의 부적응적 특성이 진로결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됨을 수용해나가면서 스스로 보다 독립적으로 변화하고자 할 때 이들은 진로결정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로 본 연구는 대학교 3

학년 이후가 앞으로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피험자를 3, 4학년 대학생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취업에 민감한 이 시기의 학생들 특성이 본 연구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이 연구의 중요한 한계점으로 보인다. 추후연구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각 학년에 따른 진로미결정과의 차이 및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원인을 함께 고려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결과로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는 진로태도 성숙의 독립성 차원과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내어 내현적 자기애 점수가 클수록 진로태도의 하위변인인 독립성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독립성과 내현적 자기애의 높고 낮음에 따라 진로미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큰 사람들에게 대한 치료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기도 하지만, 자칫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현실적 특성을 간과한 이론적인 결론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큰 사람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역할을 다루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진로미결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불안해할 수도 있으리라 가정해볼 수 있다. Goodstein(1965)은 진로미결정과 불안과의 관계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진로미결정이 불안에 선행할 수도

있고, 불안에 의해 진로미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국내 연구에서도 탁진국(1996)은 위의 연구들과는 달리 경력미결정으로 인해 불안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으로 인해 불안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의 연구들과 같이 불안이 진로미결정에 선행할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이러한 순환론적인 설명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애는 직,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변인임을 앞서서 설명하였듯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로지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자기애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연우 (2004).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 강은영 (2002). 자기주도적 자기애 및 타인의존적 자기애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김미자 (2008). 진로미결정과 애착, 자기대상욕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5(3), 229-249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9(1), 311-333.
- 김순정 (2000).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심리적 독립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진희 (1999).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특성과 심리적 독립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김은석 (2006).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지지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 김정택, 신동균 (1978). STA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선의학*, 21(11), 69-75.
- 박동숙 (2004). 내현적 자기애와 불안, 완벽주의, 강박증상간의 관련성.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백승혜 (2005).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송언희, 강연우, 허보연, 하정희 (2008). 자기제시동기에 따른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819-838.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변인들과의 관계 -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 박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영선, 김정희, 이영순 (1999). 진로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 불안의 관계.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137-161.
- 이원희 (2001). 자기애와 완벽주의, 적대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이인숙 (200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 이지영 (2004). 진로미결정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으로서의 탐색활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이준득 (2005).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 특성.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춘희 (2007).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 이현정 (1995).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통제소재 및 불안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 수준.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이혜성, 홍혜경 (1998).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43-166.
- 정남운 (2001a).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채기 (1991).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탁진국 (1996). 경력미결정과 부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9(2), 81-94.
- 탁진국, 이기학 (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경영연구*, 1(1), 167-180.
- 한주옥 (2004).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유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홍세희 (2007). 구조 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비간행본).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9-50.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Attitude Scale. Monterey, CA: CTB/McGraw-Hill.
- Freud, S. (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14).
- Fuqua, D. R., & Hartman, B. W. (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 27-29.
- Fuqua, D. R., Newman, J. L., & Seaworth, T. B. (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2), 154-158.
- Glass, C. R., & Furlong, M. (1990). Cogni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365-384.
- Goodstein, L. D. (1965). Behavioral theoretical views of counseling. In B. Steffle (Ed), *Theories of counseling*(pp.140-192). New York: McGraw-Hill.
- Gorden, V. N. (1981). The undecided studen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433-439.
- Greenhaus, J. H., & Sklarew, N. D. (1981). Som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1-12.
- Guay, F., Senecal, C., Gauthier, L., & Fernet, C.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165-177.
- Hackett, G.,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enny, D. A. (2001). <http://users.rcn.com/dakenny/mediate.htm>.
- Kimes, H. G., & Troth, W. A. (1974). Relationship of trait anxiety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277-280.
- Kinnier, R. T., Brigman, S. L., & Noble, F. C. (1990). Career indecision and family enmesh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309-312.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opez, F. G. (1989). Current family dynamics, trait anxiety, and academic adjustment: Test of family-based model of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76-87.
- Lucas, J. (1997). Development of a careertask Self-Efficacy Scale: The Kuder Task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3), 432-459.
- Marks, I. & Gelder, M. (1966). Different ages of onset in varieties of phobia. *American Journal*

- of Psychiatry*, 123, 218-221.
- Phillips, S. D. & Paziienza, N. J. (1988). History and theory of assessment of career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decision making* (pp.1-31). Hillsdale, NJ: Lawrence.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72-685.
- Schurman, C. L. (2000). Social phobia and covert narciss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right Institute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s.),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 Alto, CA: Consulting Psychology Press.
- Super, D. E. (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3), 151-163.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olbert, E. L.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Vondracek, F. W., Hostetler M., Schulenberg J. E., & Shimizu K. (1990).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98-106.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Wink, P. (1995). Narcissism. In C. G. Costello (Ed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ity disordered*(pp.146-172). New York: Wiley.
- 원 고 접수 일 : 2009. 2. 28  
수정원고접수일 : 2009. 6. 5  
게재결정일 : 2009. 8. 19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Career Indecision:  
The Mediating Effect of Anxie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Independence on the Subscale of Career Attitude Maturity**

**Jung-Hee Ha      Bo-Youn Heo      Yon-Woo Kang      Un-Hee Song**

Hanyang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anxiety and moderating effect of independence, the subscale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n the relation of covert narcissism and career indecision among 234 university student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nxiety mediated partially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indecisiveness', the subscale of career indecision. Second, independence, the subscale of career attitude maturity,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the lack of recognition about necessity', a subscale of career indecision.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on career counseling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career indecision, anxiety, independence